



사람이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말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으며 신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법도에 따르며 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안 하려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은 다민족(多民族)이 모여 국민을 이루어 살고 있으나 미국인은 애국심이 투철하며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은 죄를 감추고 빠져나가려는 우리나라의 법정과 선진국 미국의 법정은 다르다. 어떤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벌을 받는 것이 미국의 사회며 미국의 국민정신이다.

예전에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사람이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의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중년 미국 여성분이 있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구석에서 전정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력한 저명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가 하필 아들 형제의 축장이 저명인사가 타고 있던 말의 눈을 찔러, 놀란 말이 필쩍 뛰는 바람에 말과 저명인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문제인데 그 말의 가격도 자그마치 천만 불이 넘는 세계에 몇 마리밖에 없는 엄청난 비싼 명마(名馬)였다.

두 아들이 재판받게 되었다. 판사가 형제 둘에게 누구의 축장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고 물었다.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쓴 축장이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청한 것이다.

판사가 마음씨 아름답고 형제 우애(友愛)가 남다른 그 형제의 어머니를 재판정에 불러세우고,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 축장에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화도록 하시오!"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기도가 끝난 부인이 하는 말, "작은아들을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판사가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아들은 전처(前妻)의 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지고 재판정이 쥐 죽은 듯 고요 속에 묻혀 있을 때,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힘을 주어 근엄한 음성으로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하면서 오늘과 같이 감동하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가족이라고 판단한 판사는 힘주어 판결문을 낭독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지만,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국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 송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처의 아들과 친자식을 함께 키우며, 두 아들이 서로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 끔한 어머니의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인간성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한, 그 어머니의 송고한 모습이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요즘 한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은 남의 탓으로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 글을 대입(對入)하여 소개했다.

인간의 바른 인성교육을 하는 곳은 가정과 학교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효를 근본정신으로 하여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계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점차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깨우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패정치의 법원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쫓겨 후보들이 벌써 선을 보이고 있는데 전과자는 정치판에서 배제해야 하며, 바른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해야 바람직한 복지선진국이 된다.

칼럼

기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너무 먼 이야기일까?'

양길석 진도경찰서 경무과 경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직장에서 퇴사 당한 뒤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이전 직장 동료 2명과 길을 가던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르고,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흥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2012년에는 오원준의 성폭행 살인사건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일용직 30대 남성이 커터칼을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에 전가하는 형태의 '묻지마 범죄'란 정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2022년 1월 경찰청은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 범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자주 찾는 온라인상은 자극적인 시청물로 넘쳐난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등을 발굴하여 그들을 읍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이는 맞춤형 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현실에 절망하여 자신의 감정을 사회에 표출하는 이들에게 상담과 취업 등 복지 제공도 중요하지만 소시민의 삶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방비 상태에 있거나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찰인력의 확충과 경찰의 법집행 강화도 그들에게 예방주사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관 노력

이기호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히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공사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당국이 만든 제도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을 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공사장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재산피해 예방, 환경오염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